

1 효 천 테 마 독 서

" 꿈 과 잠 "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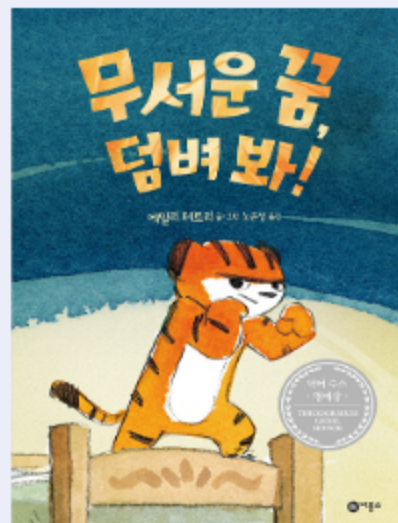


<꿈에도 몰랐던 꿈 이야기> 허은실 / 풀빛

잠잘 때 마치 깨어있을 때처럼 생생하고 신기한 일을 겪는 꿈은 누구나 경험해봤을 거예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매일매일 꿈을 꾸지만 기억을 못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고민하거나 신경 쓰였던 일, 친구와 재미있게 놀았던 일 등이 꿈에 나오곤 하지요. 꿈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알쥐가 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무서운 꿈, 덤벼 봐!> 에밀리 테트리 / 비룡소

밤마다 찾아오는 무서운 꿈 때문에 다시 잠드는 게 싫은 적 있었나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악몽을 꾸고 나면 괜히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주인공 타이거는 침대 밑에 사는 괴물 친구 덕분에 밤새 편안히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괴물 친구도 손쓸 수 없는 무시무시한 꿈이 나타나게 되면서 타이거는 스스로 악몽을 향해 나서려고 합니다. 타이거와 함께 무서운 꿈을 물리치고 악몽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봐요.



1 효 천 테 마 독 서

" 꿈 과 잠 "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나만 몰랐던 잠 이야기> 허은실 / 풀빛

밤에 잠자기 싫은데 왜 자야 하는 걸까요? 밤에 놀고 낮에 자면 안 되는 걸까요? 더 놀고 싶은 마음에 밤에 잠자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체 시계에 맞춰 지내야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은 우리 몸은 잠을 잘 때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쿨쿨 잠을 잘 자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해봐요.

<나의 잠을 깨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 백승권 / 단비어린이

엄마, 아빠가 깨워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일어나기 싫어요! 포근한 이불 속에서 신나는 꿈을 꾸고 싶어 머리까지 이불을 썼어요. 사그락 사그락 축... 또각또각 타다닥탁!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난여름 바다에서 모래를 병에 넣고 흔들던 소리 같기도 하고, 엄마랑 걸을 때 엄마 구두에서 나던 소리 같기도 해요. 이불 속에서는 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1 효 천 테 마 독 서

"꿈과잠"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난 하나도 안 졸려, 잠자기 싫어!>
로렌 차일드 / 국민서관

“롤라야, 엄마가 이제 그만 자래.”라고 찰리가 말하면 “싫어! 난 안 잘 거야.”라고 롤라는 대꾸해요. 롤라에게 졸리지 않냐고 물어보면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심지어 새벽 한 시에도 변함없이 팔팔할 거래요. 찰리는 롤라를 재우려고 온갖 방법을 쓰지만 롤라는 곳곳하게 버텨요. 찰리와 롤라는 오늘 밤 잠들 수 있을까요?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기 위한 도끼여야만 한다."**

- 보즈헤스 -